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36억원을 들여 잠실구장 시설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지붕 공사 중에 있는 잠실구장의 모습.

잠실 | 김중현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iun

잠실구장 ‘메이저리그 흠’까지 깔았다

36억 들여 리모델링…확 달라진다

**원정팀 편의 개선 라커룸·감독실 마련
석면 논란 흠·펜스 교체로 안전성 높여
관중석 넓어지고 ‘익사이팅존’ 신설도**

잠실구장이 대대적 리모델링을 통해 또 한 번 변신에 나선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선수, 관중 편의를 위해 36억여 원을 들여 원정 라커룸, 관중석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보수공사에 들어가 2013시즌을 앞둔 내년 3월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맞을 예정이다.

●원정 라커룸·감독실 확충

한국프로야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잠실구장은 ‘한국야구의 메카’다. 그러나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선수들의 편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타구장들과 달리 잠실구장은 서울 연고 2팀(LG·두산)을 수용하고 있다. 두 팀의 구단 사무실과 선수 라커룸이 따로 마련돼 있어 상대적으로 원정팀을 위한 공간은 매우 협소했다. 이 때문에 원정팀 선수들은 장비가 담긴 가방을 복도에 쌓아놓고 훈련과 경기를 치르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요소가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는 원정팀 라커룸 개선에 나섰다. 두산 조성일 구장관리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한계가 있지만, 선수들이 장비 가방을 둘 수 있는 라커 시설과 원정팀 감독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샤워실도 편의성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에서 개선안이 통과되는 대로 작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외야 펜스도 모두 교체된다. 석면으로 인해 문제가 됐던 홀도 전면 교체했다. 서울시는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공수한 흙을 잠실구장에 깔았다.

●‘관중석 더 넓게’, 편안해질 야구관전

내야지정적인 블루존과 레드존도 모두 교체된다. 이미 블루존 좌석 교체작업은 끝났다. 블루존은 기존에 비해 좌석 폭이 48cm에서 50cm로 늘었다. 레드존 역시 기존에 비해 좌석이 약간 더 넓어져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한층 안락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좌석이 커짐에 따라 좌석수 감소가 불가피해졌는데, 이 부분은 익사이팅존 개설로 보완한다. 잠실구장의 수용인원을 최소 2만5000석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 다. 1·3루 불펜 뒤편에 마련되는 익사이팅존은 가까워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미 사직구장, 문학구장, 마산구장과 청주구장도 익사이팅존 개설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추세에 잠실구장도 동참했다. 화장실도 대대적 보수에 들어간다. 몇 년 전 잠실구장은 여성용 화장실을 증설했지만 수압이 약해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불편이 컸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임창용 ‘고무줄 연봉’의 실체는?

컵스, 10만달러+마이너리그 연봉 계약
전날 밝힌 ‘2년 최대 500만달러’와 차이
협값 논란…ML 진출 성공 여부에 달려

‘2년 최대 500만달러(약 53억원) VS 최소 10만달러(약 1억700만원)+마이너리그 연봉.’

실제 계약액수와 양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기대치의 차이가 매우 크다.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는 18일(한국시간) 임창용(36)과 계약금 10만달러에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 임창용과 함께 귀국한 에이전트 박유현 씨는 “2년 최대 500만달러의 스플릿 계약을 맺었다.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며 선수와 구단 옵션이 동시에 존재하는 계약이다. 마이너리그 보장 연봉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로의 해석은 분명히 다르다. 임창용은 일본프로야구에서 4시즌 동안 128세이브, 방어율 2.11을 기록한 특급마무리였다. 컵스의 공식 발표만 놓고 보면 ‘협값 논란’이 불

가피하다. 그러나 컵스와 임창용 모두 서로의 실리와 기대치 등을 두루 포함해 점점을 찾은 계약이다.

일본에서 200여원을 벌어들인 임창용에게 보장 연봉보다 중요한 것은 팔꿈치 수술 이후의 재활과 메이저리그 데뷔 가능성이다. 임창용은 “컵스에서 오랜 시간 나를 관심 있게 지켜왔다고 했다. 재활만 잘 끝나면 메이저리그 불펜에서 충분히 통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컵스 구단주 톰 리케즈도 임창용을 만나 재활 성공 이후 메이저리그 데뷔를 약속했다.

컵스 입장에선 실패해도 금전적 손해는 크지 않다. 성공하면 연평균 250만달러 이하로 일본프로야구 정상급 마무리 출신의 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임창용은 맘 편히 재활하며 메이저리그 도전이라는 꿈을 추구할 수 있다.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면 2014년 이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한번의 대형 계약을 노릴 수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등번호 0번’ 받은 임창용…컵스서도 ‘미스터 제로’

(0점대 방어율)

1908년 이후 104년 동안 우승하지 못한 시카고 컵스는 아직 마이너리거 신분인 임창용(36)에게 등번호 0이 새겨진 유니폼을 선물했다. 2009년 구단주(톰 리케즈)가 바뀌고, 적극적 투자와 팀 정비로 2014년 우승을 노리는 컵스는 일본에서 정상급 마무리투수로 활약하며 ‘미스터 제로’(0점대 방어율의 투수라는 의미)라는 별명을 얻은 임창용에게 완벽한 부활을 바라고 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는 마음을 임창용의 임시 유니폼에 담은 것이다.

임창용은 16일(한국시간) 컵스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메이저리그에 올라섰을 때 제대로 된 연봉을 지급하는 2년 최대 500만달

러(약 53억원)의 스플릿 계약이다. 아울러 등에 0번을 단 유니폼을 기념품으로 안겼다.

임창용은 컵스의 2013년 개막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식 등번호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컵스는 임창용과 계약 후 입단식도 권유했고, 등번호 0이 적힌 유니폼도 건넸다. 입단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임창용은 ‘0번 유니폼’을 입고 유서 깊은 리글리필드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에이전트 박유현 씨는 “아직 마이너리그 소속이라 컵스 유니폼에 새겨질 등번호는 없다. 그러나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에서 착안해(컵스가) ‘0번 유니폼’을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임창용이 시카고 컵스와 계약을 매듭짓고 1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와 취재진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12월의 신부가 12월의 코치로”

롯데 이명우, 신혼여행 돌아와 사직구장 직행
아내 박주희 씨 “운동 못하면 내 탓” 등 떠밀어



롯데 좌완 이명우(30·사진)는 비활동기간인 12월 전담코치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11년간의 열애 끝에 2일 백년가약을 한 신부 박주희 씨가 바로 이명우만의 코치다.

운동선수의 부인이라면 그렇듯 박 씨 역시 ‘결혼한 다음 남편이 운동을 못하면 내 탓’이라는 부담감을 숨기지 못했다. 태국 풋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틀만 쉬고 바로 10일부터 운동하라고 사직구장으로 남편 등을 떠밀었다.

박 씨의 이명우 관리는 집에서도 이어진다. 결혼 전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이명우는 잠자느라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귀가 후 저녁식사 때도 이명우가 좋아하는 고기가 사라졌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인 이명우의 체중관리를 위해 신부가 독하게 마음 먹은 것이다. 이명우는 “해 떨어지면 과일밖에 못 먹는다”며 기분 좋은 웃음과 함께 하소연(?)을 했다.

사실 이명우는 올해 사이판 스프링캠프에서 집중적 러닝과 식단조절로 체중을 10kg이나 뺐다. 그 덕인지 74경기 등판해 2승1패10홀드, 방어율 2.56의 호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결혼식을 전후에 마음이 편해진 탓인지 다시 몸이 불자 신부가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이명우는 “마침 정민태 투수코치도 ‘살 빼라’고 했는데 잘 됐다. 지금 몸 잘 만들어서 사이판 가서 더 빼겠다”고 웃었다. 신부를 위해 야구 잘 할 일만 남은 이명우의 행복한 나날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isi121

단장들, 2군 엔트리제 도입 논의

내년 5개 구단 3군 운영…선수 동기부여에 도움

“2군 엔트리 제도도 도입해보자.”

9개 구단 단장들이 17~18일 부산에서 워크숍을 열고 프로야구 현안과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와 각 구단 단장들은 이 자리에서 야구규약과 대화요강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면서 2군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처음으로 2군 엔트리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다. 내년 시즌 KIA, LG, SK, 한화, 삼성 등 5개 구단에서 3군(육성군)을 운영함에 따라 2군과 3군에 대한 차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혹서기 주말경기 개시시간을 뒤로 늦추는 방안과 강풍시 경기 개최 여부에 대한 규정 신설 등도 논의됐다. 주말 오후 5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선 홈팀 선수들이 혹서기에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를 전후로 훈련을 시작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관중도 관람에 불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10구단 시대를 맞아 신인지명 제도를 손질할 필요도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격론이 일었다. 프리에이전트(FA)와 관련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원 소속구단 우선협상 기간 및 사전접촉 규정 폐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외국인선수 수급과 관련해 트라이아웃 개최 및 육성형 외국인선수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안건을 토대로 KBO에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내년 1월 8일 단장들의 모임인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삼성, 새 용병 우완 로드리게스와 30만달러에 계약

삼성은 18일 외국인투수 아네우리 로드리게스(25)와 계약금 5만달러, 연봉 25만달러 등 총 3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우완투수 로드리게스는 키 193cm, 몸무게 91kg으로 직구 구속은 148~152km 수준이며 피칭밸런스가 좋다는 평가다. 메이저리그 통산 44경기(선발 9경기)에서 1승6패에 방어율 5.12, 마이너리그 통산 170경기(선발 144경기)에서 45승50패에 방어율 4.80을 기록했다.

야구 특기생 대입 비리 이광은 전 연세대 감독 수배

야구 특기생 대입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은 18일 이광은(57) 전 연세대 감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이 전 감독은 연대 야구부 감독 재직 당시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대학에 입학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이 전 감독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잠적해 공개 수배했다.

KBO 홍보팀 유병석 씨, 이서현 기자와 22일 화촉

한국야구위원회(KBO) 홍보팀 유병석(29) 씨가 22일 낮 12시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일보 산업부 이서현(29) 기자와 결혼한다.

넥센 박헌도 조부상…발인은 20일

넥센 박헌도가 18일 조부상을 당했다. 빈소는 경남 창원 월남동 마산연세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은 20일. (055)223-1044.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j2357